

“생활 불편한 어르신 가족처럼 돌봐드려요”

“며느리보다 더 며느리 같은 돌보미 선생님이예요.”

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고, 한 달간 1일 3시간씩 9일간 케어를 받는 정병헌 씨는 요양보호사를 칭찬하며 신바람이 났다.

“젊은 시절 5.16혁명군에 가담하여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코오롱에 운전기사로 취직하여, 사범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교사를 하는 형님보다 두 배 월급을 받았지요.”

25년 전 홍천으로 이주해 고물상 등 닥치는대로 일을 해오던 정 씨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건강을 잃었으나, 딱히 지원을 받을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요양보험 등급이 세분화 되며,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요양보호사가 온 날은 “마음껏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 산 중 외딴집에 홀로 지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며 정 씨는 기쁨을 드러냈다. 정 씨를 보살피는 정영순(60) 요양보호사는 “부 모님 모시는 심정으로 보살피 드린다. 식사 준비



◇ 홍천군노인복지관(관장 자월)은 지난 14일 퇴직공무원모임인 상록자원봉사단(회장 신현배)과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원봉사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식사 준비 세탁서 물리·언어치료 서비스 만 65세 이상(독거) 소득·건강 고려 선정

를 해드리면 맛있게 드시는데, 그 모습은 보면 보람으로 가득찬다.”며 하는 일에 만족해했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노인돌봄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보장 및 가족의 사회나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만65세 이상 노인(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방문서비스(월27시간, 35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27시간(9일), 36시간(12일)), 단기가사서비스(월24시간)를 받을

수 있다.

• 방문서비스 :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 제공

•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단기가사서비스 : 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하며,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서비스 제공은 사회서비스 이

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제공기관(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관리 및 요양보호사(노인돌보미)를 파견한다.

- 바우처 지원액 : 193,200원~344,520원
- 선납 본인부담금(월) : 무료~64,000원

정병헌 씨의 든든한 지원자

두촌휴게소에 근무하는 김구만(53) 씨는 정 씨의 저녁식사를 수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설렁탕을 대접하고 있다. 가마솥 설렁탕을 끓이느라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는 김 씨는 “어려운 어르신께 따뜻한 국 한그릇 드리고 싶었을 뿐”이라며 겸손했다.

허남영 기자

◆ 홍천군노인복지관 9월 행사일정

일 시	장 소	내 용
2018.09.04. / 09.11(화) 08:00~	청와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문화활동
2018.09.21.(금) 10:00~	홍천군노인복지관	추석맞이 명절행사

CONTENTS

-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 03 - 귀농·귀촌인 이야기
- 04 - 경로당 탐방

- 05 - 유적지 / 전설
- 06 - 다문화가정이야기
-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 08 - 인생칼럼
- 독자기고



어르신 경륜 활용 소득 창출·지역사회 공헌 활동

“갑자같이 생겼는데 강이 정화된다고요?” EM 흙공을 처음 본 주민들의 반응은 똑같다.

홍천군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EM 흙공 체험 ‘내고장 홍천강 살리기’ 행사가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2일 홍천교(홍천터미널 다리)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재료 사용 실천과 더불어 하천 정화활동으로 지역환경을 지키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세대 및 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홍천마야유치원 원아 27명과 노인재능나눔활동 참여자 11명, EM활용단 4명이 참여하여 홍천강에 흙공을 150여개 투여했고 흙공을 직접 만들며 흙공의 장점을 홍보했다.

EM은 유용미생물이란 뜻으로 인간이나 환경 등에 무해하고 좋은 역할과 기능을 하는 미생물들을 복합배양한 것이다. EM과 황토를 배합하여 일주일 이상 발효시킨 것이 흙공이며, 이 작은 공 하나를 던지면 물속에서 서서히 풀리면서 오염물질이 정화된다.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내고장 홍천강 살리기’ 흙공체험이 지난 22일 홍천교에서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유용미생물 이용 하천정화 친환경 홍보 유치원생도 참여, 세대·지역 통합 한몫

복지관에서는 노인의 경륜을 바탕으로 소득창출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익서비스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어르신들 또한 전문적인 사회활동을 위해 시대적인 욕구 및 흐름에 맞춰 일자리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걸맞게 복지관은 일자리사업에 EM을 접목시켜 EM활용단과 친환경방역단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지역내 환경정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행사 후 참여한 주민들에게 복지관 일자리사업에서 제조한 EM발효액과 쿠키를 나누어 주어 친

환경 제품에 대해 알리고 다양한 일자리사업 정보를 제공했다.

최정숙(71) 참여자는 “환경을 위한 활동이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복지관에서 이런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는게 신기하고 많이 홍보해야겠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추천하겠다”고 했다.

노인복지관 자원 관장은 “오늘 EM 흙공 체험을 계기로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정화활동에 동참하고 싶다.”며 “앞으로 EM을 활용한 환경정화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홍천고, 치매예방프로그램 서포터즈 위촉



KB 국민건강 총명학교 청소년 치매서포터즈 양성교육이 8월 8일 홍천고등학교 학생 13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치매서포터즈로 위촉됐다.

홍천실버신문에서 홍천관내의 다양한 행사나 유용한 정보 및 기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천실버신문은 개인 및 단체 광고를 받습니다. 매월 1일자 2,500부가 700곳 이상 발송되고 있으니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광고료는 공익성 유무 확인 후 홍천실버신문 광고료 규정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귀농·귀촌인 이야기(19) 내촌면 서곡리 김승환·윤영기 씨 부부

교수 퇴직후 12년전 정착 마을 발전 건인

〈독서캠프로 인간 변화, 농촌활동으로 마을 변화〉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되는 날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 김승환(77), 윤영기(73)씨 부부를 찾았다. 무더운 날 모르는 손님이 찾아왔지만 부드러운 미소로 반겼다.

김승환 씨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여 교수로 2006년 퇴직한 후 집(채수재: 김 씨가 지은 집명)을 건축하고 홍천으로 이사를 왔지만 그 전부터 홍천과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책벌레 독서캠프장을 홍천에서 열다〉

평소 독서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책벌레독서캠프장’을 33년 전부터 방학 때마다 어린이 4~50명과 4박 5일로 야외에서 열었다. 처음엔 학교에서 열었지만 책읽기뿐 아니라 놀이와 게임과 재미를 더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야외가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4박5일을 지내기 때문에 자연이 좋은 곳을 찾다가 물 맑은 내촌천이 있고 자연이 아름다운 홍천 서곡리로 정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퇴직하기 전까지는 홍천에서 독서캠프학교활동만 하다가 퇴직 후 어린이 캠프활동은 그만두고 지금은 대학생 독서지도자 양성만 하고 있다.



◇ 김승환·윤영기 씨 부부는 홍천군 내촌면으로 12년 전 귀농했다.

〈이야기 골프길〉과 〈걷기문화 체험장 만들기〉

김 교수는 홍천군청에서 실시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공모해 여기에 선정되어 여러 가지 일들을 위원회원과 함께 추진하며 진행해 갔다. 2014년 정부 보조 사업비로 ‘이야기골프길’이란 이름으로 서곡마을의 여러 동네들을 연결하는 벨트와 같은 둘레 길을 만들었다. 이 길은 총 길이가 8.

2015년도에는 정부 보조 사업비로 ‘덕탄생태탐방로’와 서일공원이 조성되었고 2016년도에는 마을 전통숲 복원사업으로 ‘우리 숲’ 소나무 30년생 50그루를 복원하고 가족공원에 쉼터를 조성했다.

2017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마을 문화복지 사업비 5억 원을 받아 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야외공연장 지붕을 만드는 작업과 가족공원에 조각공원을 만드는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완성될 계획이다. 또 홍천군청에서 향기나는 서곡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건립중에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서곡리기획발전위원회’와 새마을 부인회, 노인회 등 14개 단체와 공유하며 회의를 거쳐 한 치의 오차나 잡음 없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 중에는 김 교수의 대학교무처 일을 하던 컴퓨터 실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퇴직 후 홍천으로 이사 올 때 부인 윤영기 씨가 먼저 홍천으로 이주하기를 원했었다.

아름답고 인심 좋고 오랫동안 정든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다고 한다.

요즘은 고추농사와 단호박 농사를 부인이 거의 다 한다. 그러나 김 교수는 농사일을 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그만하도록 말리지만 열심히 하면서 지낸다고 한다.

김 교수는 어린이의 책읽기 캠프를 통하여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지금은 서곡리를 변화와 발전으로 이끈 삶은 많은 주변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 거듭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순화 기자



고추·단호박 농사 지으며 청소년 독서캠프 운영 생태탐방로·공원 조성 마을소식지 발행 등 주도

〈‘향기나는 서곡리’ 향기나계〉

그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2013년 동네 이장을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하여 동네 발전을 위한 뜻을 모으게 되었다.

우선 기초 조사부터 하고 제대로 하자는 마음과 마을을 알리자고 생각하면서 동네 어른들과 일한만한 젊은 사람들을 모아 계획을 세우고 서곡마을 기획발전 위원회를 조직했다.

김교수는 홍보대사를 맡아서 마을사업리더 활동을 시작했다.

사업구상이 마련되면 발전위원회를 거쳐 전체 회의에 부치는 전 과정과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해 갔다.

우선 가족나무 심기와 이름 비(碑)세우기를 시작하였다. 나무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나무를 잘 돌보도록 하는 일이다.

317km이다. 이 길들은 가는 곳마다 명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이야기 길’인데 18개의 길 안내표시가 있는 골프개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도 ‘이야기 골프길’인 것이다. 이런 일들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외지에 나가 살다가 퇴직하고 들어온 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를 돌아보며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다가 이 이야기 길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덕탄 생태탐방로〉〈서일공원〉조성

또 ‘주민화합 삼진날한마당’과 ‘덕탄 수레바위 전설’ 보존활동을 하였다. ‘덕탄(德灘)’이란 알기 어려운 이름의 바위 전설을 알리고 ‘향기나는 서곡마을’ 소식지와 안내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다. 마을 소식지는 처음 2014년 2월부터 발행하여 올해 8월 19호가 발행되었다.

경로당 탐방시리즈 (51) 남면 용수리

66명 회원 화합 늘 웃음꽃... 신축 건물 가을 완공

홍천군 남면 용수리 경로당은 처음 마을회관과 리사무실이 함께 사용하였으나 2004년도에 정순호(62·마을주민) 씨가 대지 100평을 군청에 기증하여 경로당을 준공하게 된 것이다.

초대회장으로서 서성혁(98) 씨가 몇 안되는 회원과 생활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66명까지 확대됐으며 김문옥(71)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김인숙(97) 씨는 장수회원으로 둘째아들과 용수리에서 생활하며 지금까지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며 경로당에서 큰언니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정희(95) 씨도 장수회원이지만 현재 건강이 불편하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로당 회원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어 오전에는 논과 밭에서 저녁에는 경로당에서 함께 모여 나누지 못한 얘기를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낸다고 했다.

김 회장은 경로당 회원과 단합된 생활로 모범이 되어 2016년도 홍천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 홍천군보건소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치매교육을 월1회 진행하고 있으며, 노래강사가 자원봉사로 회원들에게 노래를 월1회 지도한다.



◇ 남면 용수리 경로당(회장 김문옥·뒷줄 왼쪽에서 세번째)

명절마다 도배식 열고 매월 치매방지·노래 교육 회원 일자리 확대·경로당내 운동기구 설치 희망

더불어 매주 수요일은 홍천군시각장애인협회에서 안마서비스를 진행한다. 안마서비스는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경로당은 명절마다 도배식을 갖는데 번영회와 새마을부녀회, 이장이 함께 주관이 되어 음식과 더불어 세배를 올리고 많은 선물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현재 경로당이 회원이 많아 새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며 이번 가을 완공이 되며, 구건물

과 새건물 거리가 멀어 김 회장이 손수 회원들을 새 경로당으로 송영해야 한다고 한다.

김 회장은 “월1회 회원택을 방문하였으나 앞으로 사무장과 월2회 방문하여 전체 회원을 관리하며 체크하겠다.”고 이색적인 말을 했다.

또 “새 경로당이 완공되면 운동기구가 필요하며 일자리 참여도 많아졌음 좋겠다”고 말했다.

경로당은 현재 남자 6명, 여자 6명 총1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회

원들에게 일자리가 더 주어진다면 했다.

안태수 기자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김문옥	71	귀촌
부회장	서규봉	75	서예가
여성부회장	정용자	73	주부
사무장	박남택	71	농업
감사	최재철	82	무
감사	최재화	87	무

☎ 033-435-5341



유적지 홍천 철비

현감 원만춘의 선정(善政)을 기리는 ‘홍천 철비’



‘홍천 철비’는 홍천 현감을 지낸 원만춘의 선정비이다.

선정비는 지방관이 서정시에 지역 주민을 위해 정치를 잘 베푼 것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주민들이 세우는 비석을 말한다.

원만춘은 사재감, 주부, 평강현감, 홍천현감, 안성군수, 충주목사, 수원부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주로 지방관으로 부임해 가는 곳마다 누적된 폐단을 시정하는데 전력하였고, 특히 홍천현감으로 재임 시에는 백성들에게 부역을 경감하여 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던 인물로 전해진다.

이 철비는 조선시대인 1661년 4월에 세운 것으로 크기는 너비 42cm, 높이 85cm, 두께 7

cm이고, 글자는 돌을새김(陽刻) 하였으며 주물로 제작하였다.

비문에 ‘청백선정(淸白善政)’이라는 글귀가 양각되어 있고, 후면에 장인 내금이라는 기록을 통해 현감 원만춘이 청렴한 관리로서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과 철비를 제작한 장인의 이름이 내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철비로 된 선정비는 전국적으로 드문 경우로 사료적 가치가 커서 1984년 6월 2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51호로 지정되었다.

이 비는 홍천읍 무궁화 공원에 있었는데 산화 방지를 위해서 현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향토사료관내로 옮겨 비치했다.

박영권 기자



전설 북방면 파병산

임진왜란때 침입한 왜군, 주민이 횃불로 물리친 성지



1592년 임진왜란 때 왜장 고나시 유키나가 조선의 파벌싸움과 권위주의로 내분이 일어나

자 이 틈을 엿보다 왜장이 조선의 부산항을 침공하였다.

이후 왜군은 계속 북진하였다. 이 때 강원도에 쳐들어와 춘천, 화천, 양구, 철원으로 북진하고자 홍천군 북방면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낭떠러지 밑에는 1급수인 성동천이 흐르는 요새지에 왜군 400명 가량이 진을 쳤다.

예부터 파병산은 수려하고 바위와 낭떠러지는 필리핀 바교와 이스라엘의 맛사다 같은 요새지이자 별장지였다. 토종 어종인 뚝지, 가재, 뱀장어, 메기, 꺾지, 탕파리, 붕어, 불어 지개리 등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예부터 동네사람들은 병에다 석유를 넣고 솜뭉치로 틀어막고 횃불을 만들어 고기잡이를 하였다.

밤에는 많은 물고기가 냇가에서 잠을 자므로 횃불을 밝히고 족대로 물고기를 잡아 동네 잔치와 전령으로 동네 우의가 두터웠다.

왜군이 파병산에 진을 쳤다는 것을 알고 동네에서 비밀리에 긴급회의를 했다.

오늘 저녁에 왜군을 동네에서 몰아내자 했

더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왜군을 물리칠 무기는 평소 밤고기 잡을 때 사용하던 횃불이었다. 횃불을 들고 매복하였다가 새벽3시에 왜병이 잠들어 있을 때 일제히 병에 불을 대어 횃불을 던졌다.

매복한 동민들이 일제히 “왜놈은 물러가라” 소리 지르자 왜놈들은 혼비백산하였다. 잠에서 덜 깬 그들은 조선군이 쳐들어 온 줄 알고 칼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가는 왜군은 바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

동민들이 일치단결하여 큰 전과를 세운 덕분에 왜병들은 대패하였다.

이때부터 이 산을 파병산이라고 부르고 옛적에는 군 의무대가 있었고 현재는 군 경찰대가 있으며 펜션과 별장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현재 파병산은 패명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북방면 하화계리에 위치한 높이 150m의 낮은 산이다.

이광명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50) 홍천군 동면 후인 티 튀(38) 씨

병석 시부모·남편 공경 '현죽효행상, 모범이주여성상' 수상

“남편 없어도 열심히 일해 반드시 아들 잘 키우겠다!”

베트남에서 시집와 홍천군 동면 좌운2리에 살고 있는 후인 티 튀(38) 씨는 “지금은 몸과 마음, 생활 모든 것이 힘들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잘살겠다.”고 다짐했다. 남편(이상훈·55)은 지난 7월 2일 ‘진폐증’으로 병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그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아버지 후인 반남(사망) 씨와 어머니 동티 감(85) 씨의 7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라이터 만드는 공장에 1년을 다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다. 아버지는 대량으로 논농사를 짓고 집에서 먹을 바나나, 과파야 같은 과일농사를 조금 지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 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논을 다 처분한 후 생활이 어려웠다. 당시 어머니가 아파도 병원에 갈 형편이 안됐다. 그는 한국으로 시집와 일해서 돈을 벌어 어머니를 도우려 했다.

지인의 소개로 2006년 9월 29일 베트남에서 남편을 만나 10월 1일 결혼하고 다음해 2월 7일 한국에 왔다.



◇ 후인 티 튀 씨는 시모와 함께 살고 있다.

2012년 1월 18일 자동차운전면허(2종)를 취득했지만 아직 차를 보유할 형편이 못된다.

친구들은 매년 베트남을 다니오는데 몇 년간 고향을 못 갔다. 친정옆집에 살던 친구가 “너 엄마가 많이 기다려! 친정에 꼭 가봐!”라고 전같이 왔다. 한국으로 시집을 때 열심히 일해서

너스도 더 받고 마음고생을 덜었다.

2013년 6월 21일 홍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고향방문 항공권을 받고 친구들이 돈을 모아 500만원을 빌려주어 남편, 아들과 함께 2주간 친정을 다녀왔다. 고향을 다녀온 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횡성에 있는 일통기공(주)에도 7개월 다녔다. 월 보수가 220~230만원씩 돼 친구 4명이 월세를 얻어 함께 지냈다.

근래 들어 4~5년간을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번갈아서 병원생활을 해 그녀는 일자리를 그만뒀다. 친정어머니도 연로하고 남편의 병도 점점 위중해 2016년 12월 27일 마지막으로 남편, 아들과 함께 2주간 베트남을 다녀왔다. 4년 전 시아버지가 별세하고 지지난달 남편도 세상을 떠나 지금은 팔순시어머니와 아들과 세 식구가 살고 있다. 시어머니는 노환에다 보조기구 없으면 한 발짝도 문밖출입을 못하고 아들은 초등학교생이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다!”며 끝내 울음보를 터뜨렸다.

어려운 살림에도 병석의 시부모와 남편을 공경하고 열심히 살고 있음을 인정받아 그는 2015년 10월 2일 대한노인회장의 ‘현죽효행상’을, 2016년 11월 5일에는 홍천다문화가정후원회장의 ‘모범이주여성상’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에 홍천읍내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등록했다. “요양보호사가 되면 힘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봉사하고 싶다”며 “언젠가 형편이 되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옥희 기자

안해본 일 없는 억척이, 시어머니 아들과 생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어르신께 봉사가 꿈

남편은 아버지 이남호(사망)씨와 어머니곽정옥(81)씨의 3남 4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 후 배터리(battery)공장에 기술 배우러 서울로 갔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포천에 있는 채석장에서 십수 년간 채석작업을 했다. 오랜 세월 돌을 깨는 일을 하다 ‘진폐증’을 얻게 됐다. 아픈 몸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와 산에 풀 깎기 등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2007년 11월 18일 아들(성현·12)을 낳았다. 아들 돌잔치를 끝낸 다음해 11월 23일 아들과 함께 2주간 친정을 다녀왔다.

홍천다문화가정후원회의 주선으로 2009년 9월 9일 대명비발디파크에서 다문화가정 4쌍이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2011년 4월 28일 시아버지가 지어준 ‘이태희’란 이름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집에서 홍천 읍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하루 몇 번 없다. 시아주머니가 그에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차를 사주겠다.”고 해서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했었지만 시집와서 바로 임신해 일을 할 수 없었고 무일푼으로 친정을 갈 수 없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1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인삼밭에 1년 넘게 일하러 다녔다. 면사무소에서 시행한 길거리의 풀 뽑고 쓰레기정소를 몇 달간 했고 이웃동네 된장 공장에 다니기도 했다. 홍천읍내 연봉에 황태포 공장에도 다녔고 야간 몇 달을 철정후계소에도 다녔다. 차편이 맞지 않아 영안모자 홍천지점에서 휴대폰조립업무를 못하고 2년 동안 청소만 했다. 아침 7시에 나가 저녁 7시차로 집에 왔지만 반장한테 불호령을 받았다. “튀! 네가 사장이야! 회장이야! 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 그는 다음날 사무실에 근무하는 선배언니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사정을 잘 아는 선배언니가 반장에게 집이 멀고 차가 없다는 사정 얘기를 해준 뒤로는 모든 직원들이 잘 대해줘서 더 열심히 일하고 휴일에도 나가 일을 해서 보

우리 직장 칭찬 릴레이 (52)

홍천군산림조합

전국 가장 넓은 산림 경영, 4000여 조합원들의 요람

홍천군산림조합(조합장:박유봉)은 조합원, 산림소유자,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자금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 생산력 증진,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임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6월말 기준 조합원수는 4,053명이며 그중 산을 소유한 회원은 3,124명(76%)이다. 38명의 직원이 사유림경영 지도사업(산림경영지도, 임업면세유공급, 협업경영), 산림자원조성사업(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 산림토목사업(임도, 사방, 경관조성), 임산물유통사업(잣공장, 톱밥공장, 직매장 운영), 가리산자연휴양림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조합원가입 우수조합 및 임산물유통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조합원 자녀 장학금지급, 지역정화 활동, 식목일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목일 전후 군민대상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홍천군에 무궁화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다.

이금섭 전무가 윤승희(38) 과장을 칭찬했다. 생산판매과 소속으로 2011년부터 '홍천 잣 가공공장' 운영을 담당하면서 고객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홍천군의 5대 명품인 홍천 잣을 널리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항상 긍정적이며 직원 및 고객들과 소통을 잘해서 많은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관내조합원과 산주들로부터 잣을 수매, 가공, 판매해서 잣공장이 명실상부한 자체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잣의 연간 수매량은 2016년 1100여 톤, 2017년 500여 톤에 이르는데 생산된 잣은 거래처 및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전년도 매출액은 33억 원으로 단일공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한다. 그는 "홍천에서 생산된 잣이 다른 지방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

내 8곳의 잣공장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의 우수성을 알아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송호영(40) 사원을 칭찬했다. 2015년 9월에 입사한 송 사원은 관리운영과 소

이 지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줘서 예금, 적금 등을 많이 유치하여 수신 실적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고객은 조합원 및 일반 고객이며 일반고객도 타행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영업시간도 일반금융기관보다 30분 늦은 4시 30분까지이다.

가장 기뻐던 일은 조합을 잘 모르는 고객과와서 다른 은행과 비교하다가 송 사원의 친절하고 정성스런 응대에 만족해하면서 "송 사원이 무척 친절하고 직원이고, 산림조합이 아주 좋은 은행이다"고 칭찬을 받았을 때라고 한다. 그는 "산림조합에서는 예금은 물론 융자도 해드리며 일반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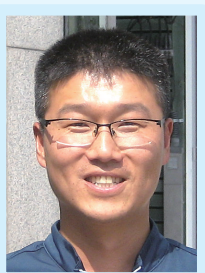
송 사원은 연제경(29) 사원을 칭찬했다. 2015년 7월에 입사해서 현재 지도협업과에 소속되어 산림경영전담지도(산림관련 상담, 컨설

팅, 대리경영 등)와 민원업무를 맡고 있다. 민원 상담 시 민원인에게 현실에 적합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해서 민원인들이 다시 찾아오는 조합, 친절하고 조합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귀농·귀촌해서 임업에 생소한 분들에게 관련법령을 알려주고, 지역 생산단체를 소개해주고, 임업관련 교육정보 제공도 해서 임업을 영위하며 홍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한다. 고객이 요청하면 현지답사를 통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을 저렴한 수수료로 해준다. 그는 "사유림 소유자가 협업경영을 원할 경우 언제라도 오셔서 상담을 해달라"며 "산림조합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지만 정말 믿을 수 있고 친절하고 조합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조합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라고 말했다.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은 "84%가 임야인 홍천에서 산림조합의 효율적 운영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최정규 기자



윤승희 과장



송호영 사원



차옥선 사원



연제경 사원

윤승희 과장 - 홍천잣 가공공장 운영, 품질 우수 명품 잣 생산

송호영 사원 - 홍천군산림조합주유소 운영, 일반유 면세유 공급

차옥선 사원 - 금융수신 담당, 단골고객 확보 수신 증대 기여

연제경 사원 - 맞춤형 산림경영지도, 임업관련 각종 정보제공

속으로 2017년 6월 화촌면 굴운리에 개점한 '홍천군산림조합주유소'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판매처는 조합원 판매 60%, 일반 판매 10%, 외상거래(장비, 공장, 트럭, 지게차 등) 30% 등이다. 개점 첫해인 2017년에는 18억 원의 매출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가격은 다른 주유소에 비해 다소 싼 편이며, 조합원에게는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배당을 해준다. 임업용, 정품 정량의 유류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배달도 해줘서 조합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임업용 면세유 공급도 한다. 그는 "많은 조합원과 일반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해와 칭찬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이 주유소"라면서 "주유소를 개점할 때까지 모든 준비에 같이 참여한 일이 가장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송 사원은 차옥선(37) 사원을 칭찬했다. 2003년 6월에 입사해서 금융 수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송 사원은 업무에 능숙하고,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어서 고객들로부터 우수 직원이라는 평을 듣는다. 직원은 물론 고객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서 단골고객이 많고, 단골고객들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이 지구상에 75억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사람은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닮은 곳이 많을 뿐이지 똑같은 순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외부 환경에 의해 성격과 질병 등에 의해 변화되고, 실제로는 이런 외부 환경이 유전자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편이라고 한다.

결국 외모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자라날수록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고, 환경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외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같은 자궁을 공유한다고 해도 위치, 혈압, 호르몬 수준 등이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다.

만약에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 동물모양 서로 닮아있다면 대단한 혼란을 야기 시키고 때론 서로의 구분을 위해서 낙인이라도 찍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의 눈 코 입 귀 등이 밀집해있는 곳을 얼굴이라 한다.

얼은 혼(魂) 또는 낮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굴(窟) 통로라는 뜻이라 얼이 들어오고, 머무르고 나가는 굴을 합하여 얼굴이라 한다.

그러므로 낮 나간 사람 / 얼굴이 : 얼이 간사람 / 어른 : 얼이 큰 사람 / 어린이 : 얼이 이른 사람 / 어리석은 이 : 얼이 썩은 사

것이며, 얼굴표정이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하는 좌표가 된다는 것은, 얼굴의 표정과 마음의 감정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6초가 걸리며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모 표정 행동이 80% 목소리의 높낮이 말하는 방법이 13% 인적이 7%가 차지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살아온 지난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닥쳐올 인생도 그려진다고 하는데 항상 마음을 평화롭고 따뜻하게 유지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꾸어야 한다.

특히 외면의 얼굴보다 내면의 마음을 먼저 가꾸어야 할 것이다. 언제 보아도 웃음을 머금은 얼굴, 반가운 얼굴, 기쁨을 주는 얼굴, 감사가 넘치는 얼굴, 영혼이 함께하는 얼굴, 즐거움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얼굴을 오늘도 지어준다면, 그 얼굴과 같이 언제나 행운이 따르고 보람을 얻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외면의 얼굴보다 내면의 마음을 가꾸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그 나름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특히 동물은 얼굴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특히 사람만이 얼굴이 서로 다르고 특히 얼굴에 그 당시에 상황이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슬퍼서 울거나 좋아서 웃거나 화나거나 무표정 하거나 이 모든 상황에 따라 얼굴에 거짓 없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지을 수 있는 것 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

람 / 멍하게 있는 사람을 보고 얼빠졌다고 하기도 한다.

사람의 얼굴은 영혼이 굴로 들어와 머물고 활동하므로 변화무쌍한 표정을 가지게 된다.

얼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빠져 있는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얼굴이 인격의 현 주소인 것이므로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나타낸다.

웃는 얼굴 화난 얼굴 놀란 얼굴 무심한 얼굴 냉정한 얼굴 등의 변화무쌍한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독자기고



김종배

(81·홍천읍 희망리)

2009년 12월 희망8리 경로당이 문을 열었다. 이때는 김규진(84) 씨가 초대회장으로 선임됐으나 경로당 자체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또 신설이라 자금도 없어 구입할 여력도 안됐다.

김 씨의 배우자인 홍난근(80) 씨는 식당을 운영했으나, 이때

폐업한 터라 식당에서 사용했던 의자와 식사도구 등을 경로당에 기부하여 경로당을 그럴싸하게 만들었다.

또 홍 씨는 친목회 등 인맥이 많고 친화력이 좋아 경로당 회원

내 반복한 결과 희망8리 경로당은 노인들의 쉼터가 됐다.

집안 사정상 홍 씨는 남편과 연봉리로 이사를 했지만, 희망8리 경로당에 관심과 후원의 끈을 놓지 않았다.

러나 지금도 아침 9시 전에 경로당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다. 또 경로당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한다.

홍 씨는 집안일 보다 경로당 일이 더 좋다고 한다. 남편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다.

홍 씨가 경로당의 숨겨진 보물이다.

집보다 경로당을 아끼고 사랑하고 키우고 지키는 홍 씨는 이 세상에 아마 둘도 없을 것이다.

우리 희망8리 경로당은 이런 보물 홍 씨가 있어 행복하다. 홍 씨가 있는 한 경로당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활기찬 경로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숨은 홍 씨가 향년 80세라는 것이 좀 아쉽기만 하다.

홍천읍 희망8리 경로당의 숨겨진 보물

확보에 힘썼으며 이에 4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홍 씨는 연봉리로 이사하기 전인 8년 동안 경로당을 위해 애썼다. 매일 아침 9시 이전에 경로당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식사준비도 했다. 40여명이 넘는 회원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1년 내

그러나 다시 희망리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경로당 회원으로 이사한 지 1년이 안된채 복귀했다. 복귀 후 홍 씨는 다시 회원 확보에 계속 노력했고, 또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점심시간만 기다린다.

이제 홍 씨는 80세가 됐다. 그